



# '세수평크 대책' 퍼즐맞춘 정부...키워드는 '외평기금→공자기금'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유례없는 '세수평크 사태'에 대응할 주요 재원으로 꼽히는 기금(基金)은 일반회계·특별회계와는 달리 특정한 목적을 위해 운용되는 특정 자금을 말한다.

통상 세수결손 재원으로는 활용되지 않지만, 이례적으로 상당액의 기금 여유재원이 생기면서 구원투수로 적극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주목하는 카드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공공자금관

## '외환 방파제' 외평기금·'공공기금 저수지' 공자기금, 구원투수 역할

리기금(공자기금)이다.

다소 복잡하지만, 외평기금의 원화 여유재원을 공자기금으로 넘기면 이를 일반회계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일정 비율까지는 행정부 재량으로 공자기금 자금의 일반회계 전환이 가능하다.

빚을 내지 않고 세수 부족을 메우겠다고 강조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숨겨둔 카드'인 셈이다.

우선 외평기금은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이다.

투기적 수요로 환율이 급등락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 또는 원화를 활용해 시장의 환율을 안정시키는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한다.

지난해부터 고공 행진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당국은 달리를 팔고 원화를 사들여 왔고, 이에 따라 외평기금에 원화가 이례적으로 대규모로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원화 예수금을 '재정 실탄'으로 활용할 여유가 있긴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당분간 외평기금의 원화 자금을 시장에 투입할 가능성도 작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외평기금에서 최소 10조원, 최대 20조원의 '실탄'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외평기금 여유재원은 공자기금을 거치는 방식으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공기금의 저수지'로 불리는 공자기금은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빌리고 재원이 부족한 기금에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 국채의 발행과 상환까지 맡은 자금 조달 창구라고 볼 수 있다.

정부도 지출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공자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빌린다. 공자기금이 일반회계에 빌려주는(예탁) 금액, 적자국채가 이에 해당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일반회계가 공자기금으로부터 빌린 자금은 2019년 34조3천억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지출이 늘어난 2020년 102조8천억원까지 늘어난 뒤 2021년 88조2천억원, 지난해 86조2천억원까지 줄었다.

올해의 경우 45조8천억원을 빌릴 예정인데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공자기금이 활용된다면, 일반회계 예탁규모는 이를 웃돌 수 있다.

다른 기금의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라면, 국고채가 추가로 발행되지는 않는다. 국가채무를 추가로 늘리지 않고 올해 세수 부족을 메운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도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국고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각 기금·회계별 재정 상황을 점검해 다른 회계·기금에 대한 자금 전출 및 공자기금 예탁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부터 공자기금으로 재원을 적극 끌어오겠다는 의미다. 그만큼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기금이 굴릴 수 있는 자금이 많아지는 셈이다.

내년의 경우 계획된 공자기금의 일반회계 예탁(적자국채) 규모는 81조8천억원이다. 국고채 발행액 가운데 상한액을 제외한 순발행(50조3천억원) 보다 많은데, 이 차이만큼 외평기금 등 다른 기금의 재원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성현 기자



## 해군 "군검사, 해병대에 공식 법리검토 제공 아냐...사건 나눈것"

군인권센터 공개한 음성파일 조작되지 않은 '원본' 입증돼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군 검찰의 구인장을 받고 있다.

해군은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군검사가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와 개인적인 의견을 나눈 적은 있지만 공식적인 법리검토를 제공한 적은 없다고 3일 밝혔다.

해군은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해군 군검사가 해병대 수사 과정에서 법리검토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와 해군검찰단 소속 A 군검사의 통화 녹음이라는 음성파일 2개를 공개했다.

통화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을 회수한 직후인 지난달 2일과 이튿날인 3일 이뤄졌다.

파일에서 해군 검사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인지하고 관련 판례를 설명했으며, 수사에 외압이 가해질 것을 우려하며 "사본을 떠놓고 잘 보관하라. 너무 무서운 일이다"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문제의 음성파일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해군은 실제 통화가 이뤄진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통화 내용을 두고 "이는 해병대 수사관의 부탁과 전날 법적검토 요청 거절 등에 대한 해당 군검사의 개인적 조치"라며 "해당 군검사는 해병대 수사단의 법적검토 요청에 대해 법적검토를 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북경찰청에 조사기록을 인계하기 전날인 8월 1일 오후 해병 1사단을 관할하는 포항 주재 해군 군검사에게 인계서에 대해 법적검토를 요청했는데, 군 검사는 해병대 수사관과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식적인 법적검토가 제한된다고 명확히 설명했다는 것이다.

해군은 "해당 군검사는 평소 업무협조 관계에 있던 수사관의 부탁에 대하여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을 나눈 내용 중 일부를 본 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주장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밝혔다"며 "관련 내용이 확산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군은 또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검찰단이 해군검찰단에 군검사들을 입단속 시키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 송원기 기자

**LGU+**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위치를 응원합니다

#파트너사이야기 #유독1주년 #새로운 친구발견



**"한정된 고객에서 벗어나  
시장을 넓게 보는  
안목이 생겼어요!"**

기존에도 유아 흄스클링 키트 정기구독 모델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독과의 제휴는 새롭고 획기적인 시도에 도전해보는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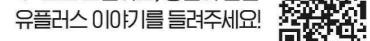
저희는 이미 기입한 한정된 고객만을 위한 접근밖에 할 수 없었는데,  
유독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키즈가구 타켓 마케팅도 해볼 수 있었어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만들어 주셔서 감사했어요.

유독이 저희에게 더 넓은 세계를 보여준 셈이죠~

"U+ 파트너십 카드 정세경 대표님"

QR 코드 스캔하고, 당신이 만난  
유플러스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런 생각, 정세경님의  
**WHY NOT?**

유플러스 유독

## 교육부·법무부, 교원 대상 아동학대 관련법 집행 개선 TF 구성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법 집행과정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담팀에는 교육부와 법무부 외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참여한다.

전담팀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처리 과정의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우려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선생님들의 교육

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이 위축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

다”라며 “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

/ 송원기 기자

## 부산 목욕탕 화재 원인 ‘유증기’ 추정…추가 감식 예정

1차 합동감식, 유류 저장 탱크서 유증기 발생 후 점화원 만난 것으로 추정



목욕탕 화재 합동 감식

소방관과 주민 등 24명을 다치게 한 부산 목욕탕 폭발 화재 원인은 ‘유증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일 오후 부산 동구 매죽지 마을 목욕탕 화재 현장에서 열린 소방·경찰·국과수

1차 합동 감식에서 김태우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실장은 “유증기가 폭발의 원

인이 되지 않았을까 추정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현재 목욕탕 지하 1층에 유류 저

장탱크가 위치하고 있다”며 추정의 근거

를 밝혔다.

유증기는 기름방울이 기화해서 안개

유증기는 정전기나 열 등 점화원을 만

나면 갑자기 폭발 사고를 일으키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김 실장은 “유류 저장탱크에서 유증기

가 발생했고, 어떤 점화원이 또 있다는 가

정하에 유증기 폭발이 아닐까 추정한다”

면서 추가 점화원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현재 목욕탕 지하층에 유증기로 추정되는 기체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고, 지하층에서 차오르는 물이 빠지지 않고 있어 4일 2차 합동 감식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 감식으로는 정확한 화재 폭발 지점 등도 확인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2차 감식 때는 바닥 면에 물이 제거될 것이고, 유증기도 다 배출될 것”이기 때문에 유관기관에서 감정하시는 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어떤 화재 패턴이 있었는지 폭발의 원인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1시 40분께 부산 동구 4층짜리 목욕탕 건물 지하 1층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폭발 사고로 소방관 10명과 경찰관 3명, 관할 구청장 등 공무원 4명, 주민 7명 등 총 2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이 중 소방관 2명은 안면부에 2도 화상 등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22명은 경상이다.

/ 심현오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측근 ‘천하용인’ 중 한명인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2일 오후 대구지 맥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달서구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시민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 이준석 “대구서 정정당당히 겨룬다면 가장 나쁜 분과”

고 했다.

내년 총선과 수도권 위기론에는 “당 대표나 원내대표를 지낸 사람이 서울에 가서 이기지 못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자기들(당 지도부)도

(수도권이) 위기인 걸 알고도 아닌 척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구지맥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지지자 등 시민들과 만나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보면 열을 받아서 보수 확장보다는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의 이런 발언은 내년 총선 대구 출마 가능성은 열어 놓으면서 TK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이날 도 대구 동구를 출마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방송에 나와서는 내가 (서울) 노원병에 나가줘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분들이 해달라는 대로 제 진로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노원병에 안 나가겠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대구에서 요즘 정치하는 분들 참 말들이 없다. 공천받겠다고 맹종 모드로 가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올 것”이라며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하나님의 목표를 삼고 거기에 대해 노력하면 ‘윤핵관’들은 그걸 막겠다고 달려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갈 생각이다”

/ 차민혁 기자

## 킬러문항 빠진 수능 어떻게 나올까…9월 모의평가 6일 실시

재수생 등 비중 22% '13년 만에 최고'…확진자도 시험장 응시 가능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마지막 모의평가가 6일 실시된다.

6월 모의평가 후 정부가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올해 수능의 난이도 등 출제 경향을 미리 염불 수 있는 유익한 시험이어서 수험생들의 이목이 쏠린다. 평가원은 6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천139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85개 지정학원에서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를 일제히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작년 9월 모의평가 때보다 1만3천545명 감소한 47만5천825명이다. 재학생은 같은 기간 2만5천671명 감소한 37만1천 448명(78.1%)으로 집계됐으나 졸업생 등 수험생(검정고시생 포함)은 1만2천 126명 증가한 10만4천377명(21.9%)이다. 졸업생 등 비중은 9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지원자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학년도(2010년 9월 시험) 이후 13년 만에 최고다. 작년 9월(18.9%)보다도 3.0%포인트 확대됐다.

9월 모의평가는 11월 16일 시행되는 2024학년도 수능의 준비 시험으로서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이 수능과 동일하다.

이번 모의평가는 특히 수험생들에겐 올해 수능의 향방을 탐색할 수 있는 체



6월 모평 준비하는 수험생들

음이자 마지막 시험으로 통한다.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매년 6월과 9월 두 차례 공식 모의평가를 통해

수험생에게 문항 수준과 유형에 적응할 기회를 주는데, 지난 6월 정부가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히면서 이전에 치러진 6월 모의평가는 올해 수능의 가능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킬러 문항을 배제한 채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할지가 이번 모의평가의 최대 관심사다.

9월 모의평가에서 졸업생 등 비중이 확대된 것 역시 쉬운 수능을 예상해 수능에 다시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생'이 증가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입시업체는 분석하고 있다.

국어, 수학 영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시험이 치러진다. 공통과목은 영역을 선택한 모든

수험생이 응시해야 하고 영역별 선택과목은 수험생이 선택한 1개 과목을 골라 응시하면 된다.

사회·과학 탐구 영역은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직업 탐구 영역도 6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문제에 대한 이의 신청은 시험 당일인 6일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따라서 킬러 문항을 배제한 채 어렵게 변별력을 확보할지가 이번 모의평가의 성적은 전체 응시생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

모의평가 성적은 다음 달 5일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필수 영역인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 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9월 모의평가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확진자는 시험장에서 KF94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받는다. 마스크를 벗

고 대화하지 말아야 하는 등 밀접 접촉도 자제해야 한다.

확진에 따른 자율 격리로 출석 응시가 어려운 수험생은 시험 당일인 6일 오후 3시부터 다음 날인 7일 오후 9시 까지 운영되는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 (<https://icsat.kice.re.kr>)에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수도 있다.

시험 종료 후 접수처에서 문답지를 받아 자택에서 응시한 뒤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 답안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온라인으로 답안을 제출한 수험생도 성적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들의 성적은 전체 응시생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

한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9월 모의평가 당일 EBS 대표 강사, 수능 연계 교재 접두진 등으로 구성된 현장 교사단이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시험 종료 직후 킬러 문항 배제 여부, 영역별 출제 경향, 주요 문항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한다고 밝혔다. EBS 가모의평가 당일 현장 교사단 언론 브리핑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사교육업체 분석에 의존하지 않도록 공적인 측면에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앞으로 매번 모의 평가 때마다 EBS 브리핑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영준 기자



### 추석 성수품 가격은?

### 1년 전보다 과일은 비싸고 채소는 저렴

추석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는 사과, 배 등 과일 가격은 1년 전보다 높은 반면, 배

추, 무 등 채소류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 정보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사과(홍로·상품) 도매가격은 10kg에 8만5천660원으로 1년 전 5만3천252원보다 60.9%

상승했다. 2018~2022년 가격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년 평균인 평년 가격(5만1천580원)과 비교하면 66.1% 높다.

배(원황·상품) 도매가격은 15kg에 5만6천920원으로 1년 전 4만4천864원과 비교해 26.9% 비싸고, 평년 가격(4만7천573원)보다는 19.6% 상승했다.

올해 사과, 배 가격 상승은 날씨 영향에 작황이 좋지 않아 공급량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시장에 추가로 공급하는데, 올해는 사과, 배 공급량을 작

년 추석 성수기보다 각각 7.1%, 8.3% 확대하기로 했다.

추석 성수품 중 채소류 가격을 보면 배 주는 10kg에 1만4천440원으로 1년 전 2만9천456원보다 51.0% 낮고, 평년의 1만8천214원보다 20.7% 하락했다. 무 도매 가격은 20kg에 2만1천20원으로 1년 전 2만9천904원보다 29.7% 감소했고, 평년(2만1천909원)보다 4.1% 하락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배추, 무 수급은 현재 안정적이지만 기상 악화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는 만큼 미리 비축한 물량과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수급 불안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양파(15kg 기준 2만1천140원)와 마늘(깐마늘 20kg 기준 13만167원) 도매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6.4%, 21.9% 떨어졌다.

축산물 중에서는 공급량 감소에 따라 닭고기 가격이 1년 전보다 비싼 수준이다. 1일 기준 닭고기 1kg당 도매가격은 3천680원으로, 1년 전 2천947원과 비교해 24.9% 올랐다.

/ 황수진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 고객과 상생하는 금융 신한금융그룹이 있습니다

고객이 어려울 때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 모두가 힘을 모아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상생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

### 이균용, 시국사건 맡아 'DJ 가택연금' 경찰서장 재판 회부

### 지하가족당 사건서는 '속앓이한 며느리는 공범 아냐' 판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택연금한 마포경찰서장을 재판에 회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1998년 10월 이 후보자가 소속했던 서울고법 형사4부는 전직 마포경찰서장 김모씨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정신청이 접수된 1988년 3월로부터 10년 7개월 만의 결정이었다. 당시 이 후보자가 이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

당시 재판부는 "범죄예방과 사회 혼란 방지를 내세워 형법이 금지하는 감금행위를 하는 것은 경찰관의 일반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이를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고소·고발인이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재

판에 넘겨진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김씨는 1987년 4월~6월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김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 수백명의 경력을 배치해 가택에 봉쇄해 감금한 혐의(불법감금)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 이 후보자는 1998년 서 울고법 형사4부 판사로 일하면서 다수 시국 사건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하가족당' 사건으로 고정 간첩으로 지목돼 유죄가 확정된 심정웅씨의 항소심에서 함께 기소된 심씨의 숙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1998년 8월 무죄를 선고해 주목받았다.

숙모 김모 씨는 심씨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간첩임을 알면서도 여려 차례 만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포함된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남편을 비롯한 시대 식구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촌 시숙을 여려

차례 만나는 것을 두렵고 불안해하면서도 오랜 기간 말하지 못한 점에 주목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사망한 후 심씨와 제사·명절 등에 만나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못했을 뿐 이를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회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1998년 6월 전·현직 언론인 7명이 반공법·포고령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경향신문 기자들로 1980년 5~6월 언론 검열을 반대하는 옥내집회를 갖고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사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두환 등의 현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현법 존립과 현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 권정석 기자

### 스마트기기 활용해 폭염 취약계층 보호한다

#### 착용형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실시간 안전관리 기술 보급 사업 착수

행정안전부는 폭염 취약계층의 과학적·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건강 상황 모니터링 및 실시간 응급상황 대처 기술 보급 사업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행안부는 착용형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심박수·피부온도 등 폭염 취약계층의 신체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스마트기는 실시간 신호를 모니터링

하고 높은 피부온도, 심박수 변동 등 이상 신호가 감지될 경우 착용자에게 경고를 보내 위험 상황임을 알린다.

폭염으로 인해 착용자가 쓰러지거나 심박수가 급격히 변화하는 등 긴급상황이 감지될 경우 사전에 연결된 보호자에 즉시 위치를 전송한다.

이장과 통장, 생활지도사, 지역자율방재단에 상황이 직접 전달돼 빠르게 구조 할 수 있는 긴급 대응체계도 구축할 계획

이다.

관계부처는 스마트기를 활용한 긴급 대응체계가 고령층 농업종사자, 현장 근로자, 재해취약계층 등 폭염 3대 취약 분야 및 주민 생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인명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고령층 농업인, 고용노동부는 건설 현장 등 야외작업자, 보건복지부는 노동인·쪽방촌 주민·노숙인 등 재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관리하는데 있어 폭염 대비를 위한 스마트기기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민성준 기자

## 與 “윤미향, 반국가세력과 함께 대한민국 위협…국회가 제명해야”

‘日총련 행사 참석’ 윤 의원 맹공…“野, 현실 부정하며 ‘이념 논쟁’ 운운”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국민 혈세를 받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아 일본에 입국해 정작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며 “과연 이런 윤 의원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국회는 반국가세력과 대한민국을 위협한 윤 의원 제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한미일 협력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정작 멀지 않은 곳에



그 세력이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윤 의원을 향해 한마디도

못 하면서 정작 대통령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21세기 대한민국에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며 황당한 인식까지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당장 반국가단체와 함께 한 윤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그의 남편,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전 보좌관,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설훈 의원의 전 보좌관은 어찌 설명할텐가”라고 따졌다.

강 수석대변인은 “올해만 해도 숱한 간첩단 사건이 속속 드러나는 마당에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이념 논쟁’ 운운하는 민주당은 국민께 백번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결국 지난 정권부터 이어져 온 이런 안일한 인식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이 활개를 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임혁준 기자

## “부인 회사 주식 못팔겠다”

### 총리 비서실장, 행정소송 제기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우자의 수십억 원대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판단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실장은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백지신탁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백지신탁은 보류됐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앞서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

배우자 주식의 백지신탁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소송을 시작한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박 실장이 비서실장 자리에서 얻는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꾀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 실장은 종리비서실 직제상 자신은 오로지 비서 업무를 맡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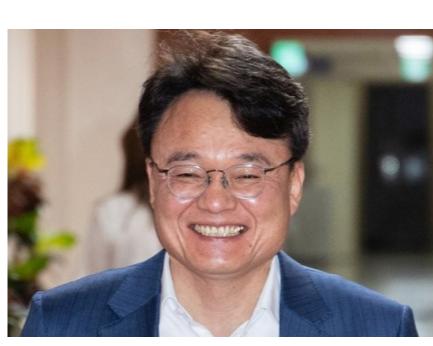
추상적 위험만으로 기업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주식을 처분하라는 것은 개인 재산에 대한 침해적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박 실장 배우자는 서희건설 창업주 이봉관 회장의 장녀다. 현재 회사 사내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3월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박 실장 배우자는 서희건설(187만2천주)과 서희건설 계열사 유성티엔에스(126만4천주) 지분을 포함해 총 64억 9천만원 규모의 주식·채권 재산을 보유했다.

박 실장 배우자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삼성전자(1천57주), 네이버(100주) 등은 팔았지만 회사 주식까지 정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인사혁신처 소속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작년 12월 박 실장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이 보유한 국내주식을 모두 처분하



국무회의 향하는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

라고 요구한 바 있다.

앞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배우자가 바이오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8억 2천만원어치 주식 등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요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진성훈 기자



## ‘아파트 하자’ 많은 15개 건설사 중

### 5개는 ‘시공능력평가 톱10’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아파트 하자 문제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최근 5년간 공동주택(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 15곳 중 5곳이 시공능력평가 ‘톱10’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DL건설이 8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의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은 678건으로 2위였다.

이어 중흥토건 626건, HDC현대산업개발 444건, 두산건설 403건, 대우건설 374건, 롯데건설 344건, DL이앤씨 283건, SM상선 267건, 대방건설 263건, 호반산업 241건, 계룡건설산업 228건, 현대건설 214건, 한양 180건, 대명종합건설 179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 15개 업체 중 현대건설(2위), 대

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 등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국내 건설업계 대표 기업들이다. 또 HDC현대산업개발(11위), DL건설(13위), 대방건설(14위), 중흥토건(15위), 계룡건설산업(18위) 등은 20위 안에 포함된다.

건설공사 실적, 경영상태, 기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겨지는 것이 시공능력평가 순위다. 따라서 공공·민간 공사에서 발주자가 각종 기준으로 활용하는 공신력 있는 지표다.

하자 판정 건수 상위 15개 업체 가운데 하자 심사 접수 건수(하자 수 기준)는 GS건설이 3천1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흥토건(2천167건), HDC현대산업개발(1천955건)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를 놓고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해주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 조영수 기자

## 삼성생명은 생각했습니다

Samsung  
Financial Networks

## ‘민생’ 페달 밟는 與 “먹고사는 문제만”…野와 차별화 시도

‘100일 민생입법’에 금주부터 ‘민생버스’…총선 전 ‘일하는 與’ 이미지 총력전



도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됐다.

이와 함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번 주 ‘민생버스’ 투어를 시작한다.

첫 행선지는 수도권이 될 예정이다. 축석 명절 전까지 주 2회 전국 곳곳의 현장을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어디에서 뛸 하든, 포커스는 경제”라며 “경제·산업·노동 현장에 집중하면서 1박 2일로 중소기업 기숙사에서 잠도 자고, 건설 현장에서 밥도 먹어 보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정기국회에 들어가면서 국민안정·미래대비·사회개혁·경제민생 등 4개 분야 중점 추진 법안을 추리고서 민주당을 향해 “밤낮없는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자”고 제안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특히 개원 일성으로 “100일간의 온전한 민생의 시간”을 강조했다.

집권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한편으로 ‘거대 야당’ 반대로 진척이 없는 각종 정부 개혁과제·입법을 압박하려는 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30% 초중반에 머무는 당정 지지도를 끌어올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 지지도가 연일 하락세지만 그 이탈 표심을 전혀 흡수하지 못할뿐더러, 역대 최대치를 이어가는 무당·부동층 표심이 여전히 요지부동인 점도 국민의힘이 민생과 경제를 전면에 내세운 배경으로 풀이된다.

특히 상대적 압세인 수도권과 중도층을 총선 전까지 이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라도 ‘민생’과 ‘경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당내 보편적 시각이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연말까지 당정 지지율을 최소한 40%대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최소한 지도부는 갈등 사안에 대한 언급을 지양하고, 오로지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송유영 기자

## 당신을 웃게 할 소식이 되자

아플 때, 걱정될 때 생각나는 보험을 넘어 언제라도 반기운 보험이 되고 싶습니다.

더 건강하게, 더 든든하게

당신의 인생에 좋은 소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의 시작

# 평택 환전소 외국인 강도 1명 구속…“도망할 염려 있어”

경기 평택시의 한 환전소를 턴 뒤 해외로 달아나려다 불잡힌 외국인 강도 피의자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상호 판사는 2일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 체포된 타지키스탄 국적 A(34)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50분께 평택시 신장동 한 환전소에서 같은 국적 B(34) 씨와 함께 모의 총기로 60대 여성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8천달러(1천여만 원)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도난 차량을 비롯한 차 2대와 조력자의 차량 1대 등으로 이동 수단을 바꿔며 인천공항에 도착해 해외



30일 경기 평택시의 한 환전소에서 외국 국적의 남성 2명이 직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사진은 CCTV 화면에 찍힌 범행 후 피의자들

도피를 시도했으나, 전날 오전 1시 40분께 출국 대기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함께 범행한 B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달

A씨는 지난해 7월 국내로 입국해 중고차를 본국으로 팔아넘기는 일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B씨 역시 비슷한 시기에 입국한 뒤 줄곧 체류한 점을 고려해 경찰은 이들이 강도 범행을 위해 입국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구속됨에 따라 이들의 범행 경위와 빼앗은 돈의 행방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의사소통에 통역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협의 입증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경찰은 A씨 등의 도피를 도운 같은 국적의 조력자 3명도 범인도피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또 도피한 B씨에 대해서는 인터폴과 공조해 행방을 짚고 있다. / 박준한 기자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 앞에 마련된 숨진 교사 A씨의 추모공간에서 한 추모객이 눈물을 닦고 있다.

## 숨진 양천구 초등교사 발인 조희연 교육감, “철저히 조사”

지난달 3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양천구 S초등학교 교사 A(38)씨의 발인식이 3일 오전 서울 은평성모병원에서 엄수됐다.

유족과 친지들은 빈소에서 발인예배를 올리며 영면을 기원했다. 찬송가를 부르는 사이 유족들은 고개를 떨군 채 연신 눈물을 흄쳤다.

A씨는 육아휴직 이후 지난해 2학기 교과전담교사로 복직했다. 6학년 담임을 맡은 지난 3월부터는 연가와 병가 등을 썼다. 사랑한 날은 질병후지 마지막 날이었다. 동료 교사들은 그가 올 들어 6학년 담임을 맡고 나서 업무에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주장했다.

윤구행렬이 시작되자 유족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우리 ○○이가 왜 가냐고. 나 어떻게 하라고”라며 오열했다. 다른 조문객들도 숨죽여 눈물을 흄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발인식에 참석해 유족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조 교육감은 “혹여라도 선생님이 고통받은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할 테니 걱정하지 마

시라”며 “인터넷에서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나쁜 사람들도 있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고인의 가시는 길이 아름답게 하겠디”고 말했다.

14년 차 초등교사인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살해 숨졌다.

예배가 끝난 뒤 옛친구의 딸이 엄마의 영정 사진을 들고 발인식장으로 향했다. 발인식은 오전 7시 30분 유족과 친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매해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나, 체납액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2017년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의 체납액 3천224억원 중 그 다음 해 거둔 징수액은 0.45%였다.

지난해 체납 규모가 가장 큰 개인의 체납액은 4천483억원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체납 조세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손현수 기자

임해 거칠게 저항하는 베트남 출신 40대 남성 A씨를 제압했으며 동포인 결혼이주 여성 B씨를 위협할 때 사용한 흉기를 압수했다.

A씨는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여권을 보여 줬지만 조회 결과 가짜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지인인 B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말다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신병을 출입국 사무소에 넘겼다. / 남연우 기자



## 보훈단체, 나흘째 광주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반대 집회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1914~1974) 기념사업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대한민국 국보보훈단체 연합회의 반대 집회가 나흘째 광주에서 이어졌다. 연합회 소속 전몰군경유족회·미망인회 등 2개 단체는 2일 오후 광주 남구 양립동에 조성된 정율성 거리에서 회원 6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30일부터 13개 보훈단체 공동 주관으로 연일 열린 집회와 동일하게 참가자들은 광주시에 사업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또, 광주에서 태어났으나 중국으로 귀화한 뒤 조선인민군행진곡·중국인민행군 군악을 작곡한 과거 행적을 재차 지적했다.

미망인회 관계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고, 1주일 이내로 답변을 주기로 했다”며 “면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재차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서 나흘째 반대 집회를 연 두 단체는 이후 동구 불로동 정율성 생가를 방문한 뒤 해산할 예정이다.

/ 이숙현 기자

## 관세 고액 체납자 신상 공개에도 징수는 체납액의 0.02% 그쳐



고액의 관세 등을 내지 않은 체납자 249명의 신상이 지난해 공개됐으나, 이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체납액의 0.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7억원이었다.

관세청은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다.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겪은 체납 징수액은 1억9천만 원이었다.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이 0.02%에 그친 것이다.

매해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나, 체납액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2017년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의 체납액 3천224억원 중 그 다음 해 거둔 징수액은 0.45%였다.

지난해 체납 규모가 가장 큰 개인의 체납액은 4천483억원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체납 조세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손현수 기자



## 손해보험에 대해 상담받고 싶을 땐?

손해보험협회 상담센터를 이용해 보세요!

전화  
대표 콜센터  
**02-3702-8500**

인터넷 & 모바일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consumer.knia.or.kr)  
접속 ➔ 보험상담 접수

손해보험협회

카카오톡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  
채널 추가 '상담' 메뉴 클릭  
\* 이용 가능시간: 09:10~11:30, 13:10~17:30 (주말, 공휴일 제외)

•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보험상품별 전문 인력이 제공하는 전문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험소비자가 어디에서든 손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22.6.14.부터 카카오톡 상담 시스템을 정식 오픈하였습니다.





## '운동하기 좋은 가을' 서울 곳곳서 생활체육 행사



'서울달리기' 참가자들

운동하기 좋은 계절 가을을 맞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생활체육 대회와 프로그램이 열린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10월8일 '2023 서울 100K'는 10월 21~22일 열린다. 인왕산, 북한산, 서울 둘레길, 한강 등 서울의 자연·역사·문화 명소를 만끽할 수 있는 코스로 준비됐다. 입문자를 위한 10K 부

문도 신설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하는 '2023 JTBC 서울마라톤'은 11월5일 열린다. 상암월드컵공원부터 잠실운동장 학생체육관 앞 도로까지 서울을 가로지르는 코스로 풀코스(비장애인)·하프코스(휠체어)·10km(비장애인) 부문이 있다.

서울광장은 '운동하는 광장'으로 바뀐다. 10월 5일과 19일, 26일 오후 7시30분 바레, 줄바 등을 즐길 수 있다.

9~11월 마지막 중 화요일에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축제 '광화문 운동회'가 펼쳐진다. 낮 12시~오후 6시에는 전통놀이 체험부스를 열고 오후 7~9시에는 디스코댄스(9월), 태권체조(10월), 치어리딩(11월) 공연·체험을 한다.

세종문화회관 오픈스테이지에서는 9월 11일~11월27일 케이팝 댄스, 리듬체조, 댄스스포츠 등을 배울 수 있는 '스포츠 in 아트스테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화문광장과 여의도한강공원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 전문 달리기 코치와 함께하는 '7979 서울 러닝크루'가 도심을 달린다.

뚝섬유원지역 2번 출구에서는 9월1일 ~10월 6일(추석 연휴 제외)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찾아가는 체육관'을 연다. 뉴스포츠 2급 지도자의 지도와 함께 8가지 종목을 무료로 체험해볼 수 있다. 망원수상훈련장에서는 수상레저리그 요트리그(일반리그, 입문자리그)를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잠실한강공원과 수종보 일원에서는 '2023 한강 르네상스 페스티벌 아쿠아슬론 대회'가 10월 7~8일 개최된다.

이외 생활체육 행사·프로그램 안내와 모집 정보는 '핫둘핫둘서울' 블로그·인스타그램, 서울시 생활체육포털(sport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송진영 기자

## 경기도, 지하차도 302개 전수조사 이달 마무리…안전시설 확충

### '침수위험 지하차도 통제 및 등급화 기준' 개선도 중앙정부에 건의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도내 전체 302개 지하차도를 대상으로 침수 발생 가능성, 안전시설 현황 등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군 신청을 받아 2026년까지 수위계(침수 알림장치), 자동차단 시설, CCTV, 경보시설, 전광판 등을 연차적으로 설치해 지하차도 안전 시스템을 완비할 방침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수위계 등 각종 센서와 CCTV를 통해 침수 상황을 자동 감시하고, 위기 징후 감지 시 자동 또는 원격으로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도는 한정된 국비와 시군 예산만으로



수원시 지하차도 침수 대비 비상 대피시설물 설치

수원시 설치 예정인 핸드레이저사다리

는 지하차도 안전시설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경기도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투

입할 방침이다.

모든 안전시설을 구비하는데 지하차도

## 해수차관, 제주서 수산물 안전관리 점검…“검사장비 확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2일 오전 제주시 한림수협 위원장을 둘러보며 판매 동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일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제주시 한림수협 위원장을 찾아 수산물 위판 현황을 살피

고 방사능 검사 절차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양기호 한림수협 조합장은 "방사능 검사를 하려 1시간 거리를 가야 하는 실정으로, 전날 저녁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맡겨 다음날 오전 3시에 결

/ 이형민 기자

##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르면 12월 시범도입…서울시에 100명 규모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가사와 육아를 돋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이 서울시에 시범 도입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9차 외국인정책위 및 제2차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비전문 외국인 체류자격인 'E-9' 비자를 이용해 시범 도입된다. 시범사업은 심층 모니터링을 위해 소규모인 100명으로,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한다.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이 우선 이용 대상이다.

가사관리사는 만 24세 이상 외국인 중 관련 경력·지식과 어학

능력을 평가하고 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한 뒤 선정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공동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사관리사 자격과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인력 공급·관리·운영을 진행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율러 대다수 가정이 주 1~3회, 1회 4~6시간의 파트타임 가사 관리사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원하는 시간에 파트타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 신지호 기자



### 오염수 방류 우려했는데

## 부산 전어축제 사흘간 흥행 성공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열린 부산 명지시장 전어축제에 예상보다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부산 강서구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 까지 열린 제21회 명지시장 전어축제에 약 3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지난 24일부터 시작되면서 축제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했지만, 예상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몰렸다.

강서구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만 5천여명이 이번 축제 행사를 방문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서구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로 인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제철 맞은 전어를 먹기 위해 축제장을 방문한 구민과 관광객들로 축제장이 북새통을 이뤘다"고 말했다.

또, "안전시설에 중점을 둔 평가 기준으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냈다"고 말했다.

축제 기간 소진된 전어 역시 예상치를 웃돌았다.

사흘 동안 소비된 전어는 20t가량이며,

축제 마지막 날에는 하루 동안 10t이 소진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매출도 예년과 비교해 30% 이상 증가했다고 명지시장 상인회는 밝혔다.

명지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보통 오후 9시 이후에도 장사하는데 이번에는 전어가 워낙 잘 팔려 오후 7시에 조기 마감을 하는 점포도 꽤 많았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로 인해 안정성 우려도 있었지만, 부산시와 협업해 방사능 검사를 마친 뒤 안전하다고 홍보한 덕

에 많은 시민이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상인회는 오는 주말까지도 다양한 전

어 요리를 준비해 축제 분위기를 이어 나

갈 예정이다.

명지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전어를 맛본 관광객들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전어 맛이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며 "아직 전어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이번 주말 시장을 꼭 방문해 전어의 쫄깃하고 고소한 맛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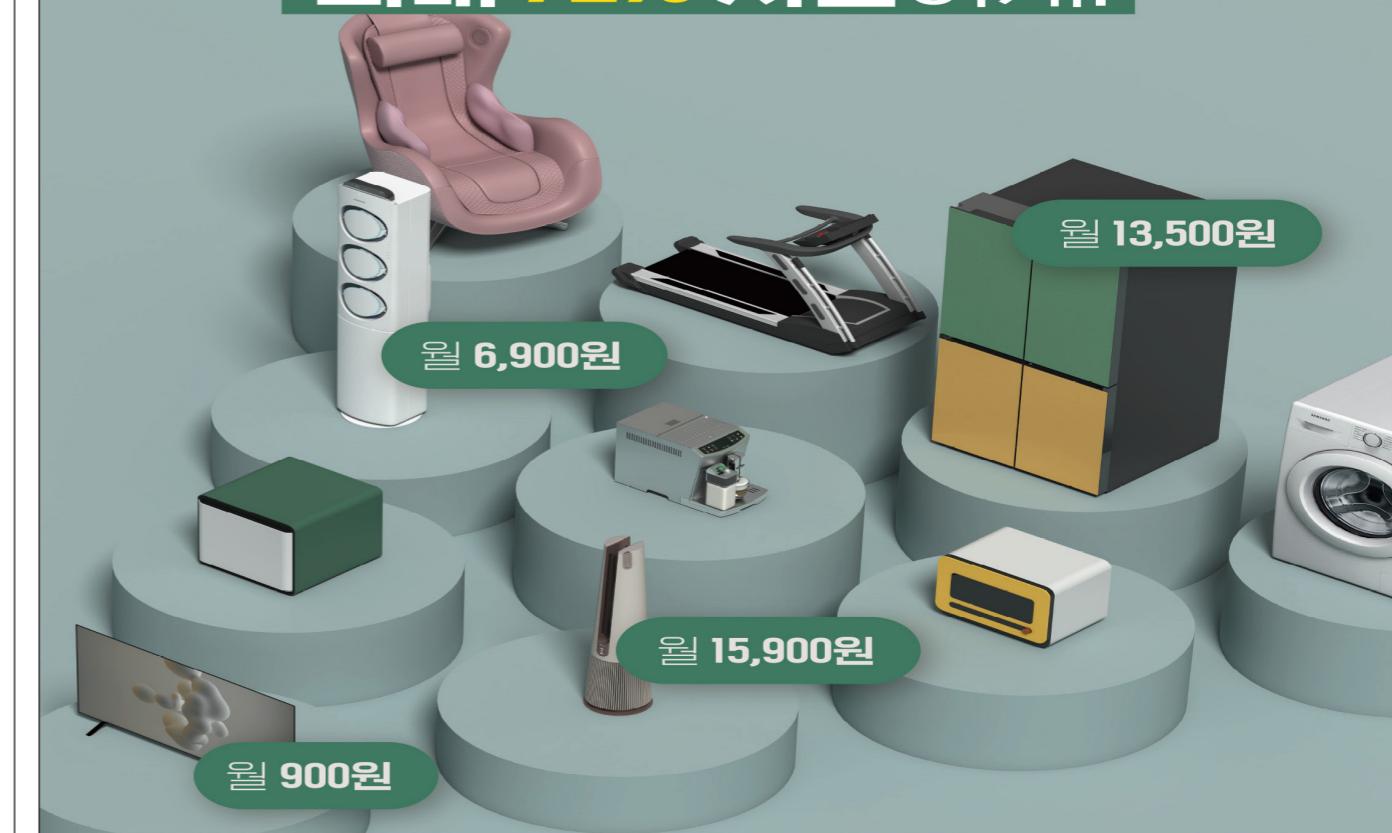
/ 이희성 기자

LG HelloVision

Hello rental

##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상담문의 1855-1082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제휴카드 전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의



# 경기도, 화성 개 사육장서 1천400마리 구조



구조된 개들을 바라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가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화성시 팔탄면의 개 번식장에서 1천400여 마리의 개를 구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끔찍한 현장에서 구조된 개들을 경기 반려마루(반려동물 복합문화

보를 받고 긴급 지시를 내려 진행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축산동물복지국 관계자들이 현장에 나가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생존 개들을 확보했다.

해당 번식장은 자체 신고를 거친 시설이지만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 조건보다 1천마리나 많은 개가 좁은 공간에 방치돼 있었고, 냉동고에는 신문지에 쌓인 개 사체가 100구 가까이 발견됐다.

도는 번식장 소유주에게 개 소유권 포기 의사를 얻어내는 한편 해당 사업장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동물 복지 수준을 이제 한단계 더 높여야 한다”며 “변화의 중심 경기도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호조치는 지난 1일 김 지사가 사단법인 동물구조단체 위액트의 SNS 제

/ 박현숙 기자

## 충북교육청 인공지능 윤리교재 제작…초중고에 배포

충북도교육청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여건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 윤리 교재를 제작해 초·중·고 등 도내 모든 학교에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교재는 학생들이 인공지능 기술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시대를 살아갈 시민으로 갖춰야 할 윤리역량 함양을 목표로 개발됐다.

정부가 발표한 인간존엄성 등 3대 원칙과 인권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10대 요건을 토대로 만들었다. 또 내년부터 도입되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 소양교육을 중심으로 만들었다.

초등학교 교재는 현행 교과와 연계한 놀이, 중학교 교재는 체험활동, 고등학교 교재는 개념 위주 학습 뒤 기초·심화탐구가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이 교재와 관련된 수업자료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황유진 기자

저탄소 친환경 기업   사람중심 가치창출 기업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   ESG 경영 선도 기업

## Action for Positive Change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연결하는 혁신적인 금융투자 파트너**

**교보증권이 함께합니다**

2021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우수IB 선정  
2022 KRCA 최초발간부문 우수상 수상  
2023 KG제로인 대한민국 펀드아워즈 투자자보호 부문 1위

교보증권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로 고객가치를 향상시키고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도전과 창의 + 고객중심 + 정직과 성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식거래 시 온라인 매매 수수료는 0.1492%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3호-02637호(2023.07.24 ~ 2026.07.23)

## 중국발 크루즈 4년만에 인천 기항 추진…유치활동 본격화

### 올해 10~11월 3척 기항 추진…중국 항만당국과 협력 강화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관광이 재개되면서 올해 인천항에도 중국발 크루즈가 잇따라 기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중국 크루즈 선사 2곳은 오는 10~11월 인천에 크루즈 3척을 기항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선사들은 중국 텐진이나 산둥성 칭다오에서 출발해 인천과 제주 등지를 거치는 항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월 인천 기항이 계획대로 성사되면 중국발 크루즈는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에 다시 인천에 오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3년 넘게 중단됐던 인천항 크루즈 운항은 올해 3월 재개돼 이미 7척이 인천에 기항했으나, 한중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모두 중국을 거치지는 않았다.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관광을 허용한 뒤에도 제주도에만 크루즈 기항 예약이 몰렸다. 올해 제주도에는 중국발 크루즈가 47차례 기항할 예정



지난 3월 인천 내항에 입항한 크루즈

이다.

IPA는 국내 최대 규모인 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과 항공 연계 상품(플라이&크루즈) 등을 앞세워 크루즈를 인천에 유치할 방침이다.

IPA는 최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중국 국제크루즈서밋’에 참가해 선사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다음 달에는 텐진항을 관리하는 국영기업인 텐진항무그룹이 부총재를 초

청해 인천항의 강점을 설명하고 11월에는 칭다오항을 관리하는 산둥성 항무그룹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IPA 관계자는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크루즈가 많다 보니 선사들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제주도를 주된 기항지로 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인천과 거리가 가까운 북중국 도시들을 위주로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라 고 말했다. / 김현중 기자

##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히 의결하라”…경남도민 웰기대회

### 박완수 지사 “특별법 심의 미뤄지면 330만 도민 좌시 않을 것”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웰기대회

경남도민들이 국회의 거듭된 파행으로 진통을 겪는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웰기대회를 열었다. 경남지역 산업계·학계·비영리 민간 단체 등 38개 단체·협회 등이 연대해 발족한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3일 사천 삼천포대교 공원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를 위한 범도민 웰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웰기대회에는 박완수 경남지사 를 비롯해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최효석 재경 경남도민회장, 권순일 경상국립 대 총장 등 추진위 공동위원장과 최형우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 하영재 국회의원, 박동식 사천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등 도내 기관단체장과 지방의원, 추진위 소속 학계와 산업계·시민단체 등에서 5천여명이 참가했다.

추진위는 이날 대회에서 지난 4월 제출

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하게 통과시키기로 국회에 촉구했다. 이어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한 경과보고 영상 상영에 이어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초일류 국가로 도약을 위한 초석인 우주항공청을 설치할 수 있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건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 등을 하며 우주항공청 설치 업원을 표출했다.

박완수 지사는 “국가 우주경제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주산업 중심은 반드시 경남이어야 하고,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며 “일부 공공기관이나 정치인의 집단이기주의적 반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 시간 이후 우주항공청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은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세력이며, 역사의 죄인”이라며 “여야가 추석 전 특별법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더

이상 미뤄진다면 330만 경남도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부 의장은 “우주항공청 사천 설치 와 특별법 조속 제정은 경남도민의 염원이며 도의회가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효석 재경경남도민회 회장은 “우주항공청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을 더 지켜볼 수 없어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며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경남 출신 향우들이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발족한 추진위는 같은달 3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집회를 열고 “우주항공청을 정쟁과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며 촉구한 뒤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통과 촉구 건의문을 민주당에 전달한 바 있다. / 권도훈 기자

## 제주 ‘천원의 아침밥’ 본격 시행…도내 3개 대학 대상

제주지역 대학가에서도 학생 아침 식사를 1천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제주도는 지난 6월부터 제주대학교에서 시범 운영해온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오는 2학기부터 제주한라대와 제주관광대까지 3개 대학에서 본격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식품부가 2017년부터 대학생 건강 증진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제주지역 대학의 경우 재정 여건이 어려워 참여가 저조했지만, 도가 재정 보조에 나서면서 지난 4월 제주대와 제주한라대, 제주관광대 3개교가 사업 대상으로 추가 선정됐다.

도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해 대학생 아침 식사 1끼당 2천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1천원, 각 대학은 500~1천원을 지원하면서 대학생은 1천원만 부담하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천원의 아침밥 운영시간은 대학 식당 여건에 따라 다르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아침밥을 챙겨 먹으면서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황민욱 기자

## 해트트릭으로 침묵 깬 '캡틴' 손흥민 "모범이 되려 노력한다"



번리와의 경기 마치고 동료들과 자축하는 손흥민

시즌 1~3호 골을 한꺼번에 넣으며 새로운 시즌 득점 사냥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손흥민(토트넘)은 팀의 주장다운 남다른 책임감을 보였다.

손흥민은 2일(현지시간) 영국 번리의 터프 무어에서 열린 2023-20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4라운드 번리와의 원정 경기를 마치고 현지 인터뷰에서 "번리 원정은 항상 어렵다. 우리는 밀리며 시작했지만, 강하게 반격했다"고 돌아봤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전반 16분과 후반 18분, 21분 득점포를 가동하며 팀의 5-2 대승과 리그 4경기 무패(3승 1무) 행진에 앞장섰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주장을 맡은 손흥민의 시즌 1~3호 골이었다.

기존에 선발 최전방 공격수로 기회를 얻던 히샬리송이 부진하며 벤치로 밀려난 가운데 이날 최전방에 선발 출격한 손

흥민은 득점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3골 중 어느 하나를 고르기 어렵다"고 밝힌 손흥민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승점 3을 얻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주장이지만, 주변에 훌륭한 선수들이 많다. 그들이 나를 많이 도와준

다"며 동료들에게 공을 돌렸다. 이어 "내 역할은 아주 쉽다.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고, 미소 지으려 하며, 경기장 안팎에서 책임감을 가지려 한다"고 강조했다.

주중 리그컵(카라바오컵) 2라운드에서 풀럼에 덜미를 잡혀 앞선 리그 3경기 무

패 상승세가 잠시 끊겼던 토트넘은 주장이 이끈 대승 덕에 분위기가 한껏 고무됐다.

손흥민은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고, 여전히 더 나이지기를 원한다"고 힘줘 말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도 해트트리를 기념하는 세 손가락을 펼쳐 보이는 사진 등을 올리며 자축했다. 인스타그램 글에서 그는 "어려운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보여준 놀라운 경기력이 자랑스럽다. 좋은 분위기에서 A매치 휴식기를 맞이한다"면서 팬들의 성원에 고마움을 전했다.

구단 계정에 올라온 영상에서도 손흥민은 "힘든 원정이었지만, 여러분의 응원을 느낄 수 있었다. 승점 3을 따내 기쁘고, 해트트리를 작성한 것도 특별한 일"이라며 재차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

/ 박민성 기자

▲ 완벽한 경기장 조성 투 트랙으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원활한 대회 운영 지원을 위해 행정지원본부를 구성, 분야별로 대회 준비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이슈가 된 국제 대회 준비 부족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위원회, 개최도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준비 상황을 꼼꼼하게 챙겨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하지만 청소년올림픽대회의 완성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미래 세대와 함께 성공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가 네 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주요 경기장 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대회 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점검에는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와 진종오 조직위원회 위원장, 컬링의 팀킴, 밸레리나 김주원, 스노보드 해설위원 박재민 등이 함께 했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 원활한 대회 운영 지원

▲ 완벽한 경기장 조성 투 트랙으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최준용 기자

## 오타니에게 희망 주는 류현진 두 번째 팔꿈치 수술 '모범 사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다면 두 번째 수술 성공 가능성은 과거 50%에서 현재 60~70% 수준으로 올라온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이 매체는 생애 두 차례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고도 성공적으로 복귀한 투수들을 나열하기도 했다.

AP는 "네이선 이발디(텍사스 레인저스)와 제이미슨 타이온(시카고 컵스)이 가장 눈에 띈다"라며 "류현진도 지난 달 복귀했다"고 전했다.

이발디는 고교 1학년 때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았고, 2016년 같은 수술을 다시 받았다. 그는 2019년에도 팔꿈치 유리체 제거 수술을 받는 등 세 차례나 같은 부위에 칼을 끌 뒤 재기에 성공했다.

타이온도 2019년과 2020년 팔꿈치 수술을 받았지만, 2021년 8승 6패 평균자책점 4.30, 2022년 14승 5패 평균자책점 3.91로 활약했다.

류현진도 두 차례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고 성공적으로 복귀한 사례다. 그는 동산고 2학년이던 2004년 첫 번째, 2022년 6월 19일 두 번째 토미 존 서저리를 받았다. / 윤주한 기자

## 박보균 "강원 청소년올림픽, 잼버리 같은 아쉬움 없게 하겠다"

###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저력·경험 바탕으로 준비 착착"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강릉 컬링 센터를 방문, 팀킴 및 조직위 관계자 등과 대회의 성공개최를 다짐하고 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는 새 만큼 잼버리 대회 초기의 아쉬움과 답답함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강릉 올림픽파크 내 컬링센터 등을 방문, 청소년올림픽대회의 현장 점검을 한 자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원도와 함께 청소년올림픽을 가장

멋지고 감동적으로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대회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늘 현장에 와보니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견증된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정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 믿음이 간다"며 "청소년올림픽은 감동적이고 매력적으로 펼치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강원도는 1991년 고성 잼버리 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의 DNA와 경험, 전통과 열정을 축적하고 있는 곳"이라며 "청소년올림픽 대회는 세계 스포츠 제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하지만 청소년올림픽대회의 완성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미래 세대와 함께 성공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가 네 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주요 경기장 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대회 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점검에는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와 진종오 조직위원회 위원장, 컬링의 팀킴, 밸레리나 김주원, 스노보드 해설위원 박재민 등이 함께 했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 원활한 대회 운영 지원

▲ 완벽한 경기장 조성 투 트랙으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최준용 기자

## 여고생 홍효림, 태권도 그랑프리 동메달



태권도 대표팀의 유일한 고교생인 홍효림(강원체고)이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값진 동메달을 수확했다.

홍효림은 3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근교 르발르와 페레에서 열린 파리 2023 세계태권도연맹(WT) 그랑프리 2차 대회 여자 67kg급에서 3위에 올랐다.

그는 16강전에서 만난 사라 사리(벨기)에 2-1(3-6, 5-5, 8-7)로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사리는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62kg급과 세계주니어 선수권대회 63kg급 금메달을 차지한 이번 대회 우승 후보였다.

난적을 꺾은 홍효림은 8강에서 만난 페트라 스틀보바(체코)도 라운드 점수 2-1(10-4, 1-6, 1-1)로 누르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결승 진출은 어렵게 실패했다. 중국 명위장에게 라운드 점수 0-2(2-9, 2-2)로 패했다.

홍효림은 1회전을 큰 점수 차로 내줬고, 2회전에선 원발 돌려차기로 선취점을 얻고도 동점을 허용한 뒤 유효타에서 뛰어 우세패로 졌다. / 신정균 기자

# 포항 10대 포항의 맛



모리국수



해신탕



영일대 조개구이



동푸른kkwa



과메기



구룡포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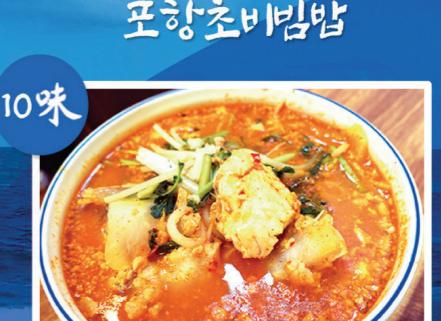
포항초비빔밥



소머리국탕



물회



아구탕

포항

# 음례협, 피프티 사태 비판 “데뷔 직후 정산 문제 삼는 건 착오”

“이 건으로 해외 K팝 위상 꺾일 수도…명명백백 밝혀져야”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린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를 둘러싼 전속계약 분쟁에 대해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회장이 “데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산을 문제 삼는 것은 착오”라고 멤버 측에 비판적인 소신을 밝혔다.

윤 회장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연투 유TV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처음에는 무조건 적자로 시작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투자·손해·이익이 반복되다 보면 흑자가 발생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프티 피프티 측이 문제 삼은 ‘음반·음원 선급금 투자’ 이슈를 짚었다.

윤 회장은 “음반·음원 선급금 투자는 매달 발생하는 음반·음원 수익을 상계 처리하는 구조”라며 “어느 정도 수익이 보



피프티 피프티

장된 스타는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투자가 되기에 개인적으로 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신인의 경우 선급금 투자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린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를 둘러싼 전속계약 분쟁에 대해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회장이 “데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산을 문제 삼는 것은 착오”라고 멤버 측에 비판적인 소신을 밝혔다.

제 삼는 것은 착오”라고 멤버 측에 비판적인 소신을 밝혔다.

윤 회장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연투 유TV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처음에는 무조건 적자로 시작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투자·손해·이익이 반복되다 보면 흑자가 발생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프티 피프티 측이 문제 삼은 ‘음반·음원 선급금 투자’ 이슈를 짚었다. 윤 회장은 “음반·음원 선급금 투자는 매달 발생하는 음반·음원 수익을 상계 처리하는 구조”라며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된 스타는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투자가 되기 위해 개인적으로 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신인의 경우 선급금 투자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이은희 기자



## 유해진·김희선 로코 ‘달싹지근해’ 100만 관객 돌파

유해진·김희선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달싹지근해’ 7510’이 대작들 틈에서 100만 관객 돌파에 성공하며 극장가 다크호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일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 영화는 개봉 19일째인 이날 오전 누적 관객 수 100만명을 넘겼다. ‘달싹지근해’는 전날 2만6천여 명의 관객을 모아 일일 박스오피스 4위에 올랐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오펜하이머’와 최근 개봉한 신혜선 주연 스릴러 ‘타겟’, 엄태화 감독의 재난 영화 ‘콘크리트 유트피아’의 뒤를 이었다. ‘달싹지근해’는 순진한 제과 회사 연구원 치호(유해진 분)가 미혼모인 일영(김희선)과 첫사랑에 빠지며 겪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 황규현 기자

한국 여름 대작 영화 4편이 개봉한 이후 ‘오펜하이머’와 같은 날 극장에 걸렸다. 정우성이 주연과 연출을 맡은 액션 영화 ‘보호자’도 동시에 개봉했다.

쟁쟁한 경쟁작이 많았던 만큼 ‘달싹지근해’의 흥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타겟’이 개봉한 지난달 30일 전까지 박스오피스 3위를 지키며 꾸준히 관객을 모았다. 이한 감독이 연출한 ‘달싹

지근해’는 순진한 제과 회사 연구원 치호(유해진 분)가 미혼모인 일영(김희선)과 첫사랑에 빠지며 겪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 황규현 기자

## 또 한 번 어긋나버린 인연 ‘연인’ 파트1 12.2%로 마무리



애절함에 설렘을 더한 로맨스 사극 ‘연인’ 파트1이 자체 최고 시청률로 마을 내렸다. 3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0분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연인’ 파트1 최종회 시청률은 12.2%로 집계됐다.

전날 방송에서 참혹한 전쟁과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마주한 이장현(남궁민 분)과 유길체(안운진)는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

청나라 심양으로 떠났다가 몇 년 만에 조선으로 돌아온 이장현은 유길체에게 줄 꽃신을 가득 실어 오지만, 이장현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유길체는 구원무(지승현)과 혼인을 앞두고 있었다.

## 아시안게임 해설 나선 ‘배구 황제’ 김연경 “어록 만들 것”



“시청자분들께서 편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하니까 지나치게 직설적인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웃음)”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해설을 위해 내로라 하는 해설진이 KBS로 모였다.

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KBS 항저우 아시안게임’ 제작발표회에는 전 야구 선수 박찬호, 박용택, 전 축구선수 이영표, 배구선수 김연경, 전 농구선수 양동근, 골프선수 최나연 등이 참석했다.

처음으로 해설위원에 도전하는 김연경은 “대표팀 어드바이저(고문)로 경기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 같

이 호흡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해설 위원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15년간 한국 배구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2012 런던올림픽, 2020 도쿄올림픽에서 대표팀의 4강을 이끈 김연경은 “아직은 현역 선수라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다”고 씩 웃어 보였다.

그는 “주변에서 기대가 많은 것 같아서 잘해야 할 것 같다”며 “주변에 조언을 구해 어록을 만드는 데 도전해 보겠다. 해설위원 유니폼이 아직 어색하지만, 편하고 쉬운 해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저는 아시안게임 금·은·동메달을 모두 갖고 있어요. 현장에서 그 경험을 선수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올해 한국 남녀배구팀 선수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김연경은 “지금 남녀 배구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모두 아시안 게임을 앞 두고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최형찬 기자

## 트와이스 유닛 미사모, 일본 도쿄서 팝업 전시

걸그룹 트와이스의 미나·사나·모모로 구성된 유닛(소그룹) 미사모(MISAMO)가 오는 3일까지 일본 도쿄 시부야에서 팝업 갤러리 ‘마스터피스’를 진행한다고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2일 밝혔다.

이 전시는 미사모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일본 데뷔 음반 ‘마스터피스’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선보이는 자리다.

갤러리는 ‘걸작’과 ‘명화’ 콘셉트로 꾸며

졌다. 다양한 MD(굿즈 상품)는 물론 미공개 사진, 뮤직비디오 촉용 의상, 친필 사진 포토존 등을 볼 수 있다. 박지영 JYP 대표 프로듀서가 미술관 내 작품 접촉을 경고하는 문구를 콘셉트로 멤버들을 미술 작품과 같은 존재로 표현해냈다. 미사모의 ‘마스터피스’는 발매 첫 주 15만5천장이 팔려 일본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 1위에 올랐다.

/ 황규현 기자

## 경찰연합신문

[www.koreapolicenews.com](http://www.koreapolice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최영민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민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광고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Z O 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길  
와 함께 산과 물이  
여울에서 흐르고...

물  
아 영양의 물 흐르는  
반면천

# 빛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보는 영양

# 맛

사발년을  
이어온  
다방

# 쉼

기자  
영양연수장  
을 찾는다...

영양군  
YEONGNAM-GUN

#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뵐수록 매력이 샹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산비워와 낙이포, 삼의계곡, 수하게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바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문화방, 서석지, 두돌미, 주실마을, 긴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김선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방아틀보호공원, 빙다트볼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주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난촌생활박물관, 분재수식아상화전시관

금융의 모든 순간 \*

NH농협금융

매주 전화로 꼭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식사는 거르지 않는지  
행여나 적절하지는 않나  
혹시라도 이상한 전화를 받을까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봅니다

나를 한결같이 챙겨주는  
고마운 친구가 있습니다

나의



농촌 독거 어르신 말벗서비스

NH농협은행은 2008년부터 농촌지역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안부 전화 서비스로 따뜻한 말벗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친구가  
되어준  
은행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NH농협은행이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